

남원에촌, 남원 관광의 심장

시, 612억원 투입 조성사업 추진 결과 관광객·시민 몰려와

남원시가 관광투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남원에촌을 중심으로 관광지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 남원시는 시내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하며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으며, 시내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에촌 조성사업'을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관광투원을 중심으로 시내권 관광지도를 바꾸고 있다.

남원에촌은 관광투원 주변 금동과 죽향동 일원에 총사업비 612억원(국비 244억, 도비 131억, 시비 237억)을 들여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지구 남원에촌, 2지구 예촌길, 3지구 고생지구 추어의 거리, 4지구 남원전통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원에촌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국내 우수관광차량을 선발하는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숙박부문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지난 10월에는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한 안숙선 명창을 중심으로 하는 명창의 여정, 조갑너 명무를 뿌리로

하는 조갑너류 밀살풀이춤, 도지정 문화재로서 서당문화 체험과 연계하는 관서당, 황의 조당,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트래블라운지, 친수공간(실개천) 등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체험과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주말에 문화관광형 장터 꽃담장이 열리면서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바, 꽃담장은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속살을 보여주는 한편, 관광투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남원에촌과 시내권으로 유입시키는 역

할도 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개발을 미뤄왔던 합과우 유원지에 체험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남원농악을 체험할 수 있는 소리체험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개관해 수준 높은 남원의 문화향기를 선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예술인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촌 기반을 마련하고,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옛다솜 이야기길 조성사업도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실현 업무 협약

3억5000만원 투입 복흥면에 지역아동센터 건립키로

순창군은 15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농어촌아동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인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이다.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안전하게 보호하고 놀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를 복흥면에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부지는 순창군이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 건립이 완료되며 해당 건물은 순창군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설계부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지역여론을 반영해 건립되는 공립형지역아동센터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20년부터 해당 공모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창군 공무원들의 바빠진 대처가 성과로 나타났다.

황숙주 군수는 "농어촌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이 마련돼 보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건립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순창군에 기부되어 2020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학습지도와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괴정영농조합법인,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순창군 괴정영농조합법인(대표자 권대환)이 15일 경기도 안성 판랜드에서 개최된 2018년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인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우수 경영체 시상을 통해 조사료 품질향상과 경영체의 생산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서 주관했다.

총 7개 부문에 걸쳐 수상을 진행한 이번 대회는 총 상금 5백만원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일리지 품질인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전국 사일리지 출품시료 중 미달되는 시료를 제외한 83점 중 최종 7점안에 드는 쾌거를 이뤘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순창군 조사료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축산농가에서 더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료용 종자구입, 조사료 생산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 조사료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 사일리지의 품질 균일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조사료의 품질 평가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며, 한국조지조사료학회 주관으로 자금 조사료 품질 경연대회가 열린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맞춤형 물리치료실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맞춤형 물리치료실 효자 노릇

임실군,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처방

임실군이 상시 운영 중인 맞춤형 물리치료실 시스템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 맞춤형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물리치료를 받을 때가 가장 단란으로 증상에 맞지 않는 물리치료를 할 경우,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물리치료실에는 체외충격파치료기, TENS(경피 전기신경근전기자극기), 감압과전류치료기, CPM(전통식정형운동장치) 등 최신식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기의 경우 몸 밖에서 충격파를 통증부위에 가해 혈관재형성을 돕고 그

주위 조직과 뼈를 활성화시킨다. 전류로 피부의 말초신경 자극 통증 치료에 TENS를 가동한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질환에 따른 통증 및 변형의 현상이 의심되는 경우엔 신속히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줄 것"과 "앞으로도 질병 예방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민선 7기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주민 맞춤형 물리치료를 통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행정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의지를 다졌다.

남원시, 2019 나눔 캠페인 성공적 추진 다짐

남원시는 희망2019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복지과 및 23개 읍면동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의지를 다졌다. '사랑의 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나눔이 행복을 만든다는 기치아래 캠페인을 시작한다. 강완주 주민복지과장

은 "최선을 다한다면 가장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며 활동을 당부했다.

이환주 시장은 "나눔이 곧 희망이라면서 캠페인도 쉽지 않겠지만 민관이 협력해 의지를 보여준다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의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평가 장관상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2018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생물 테러 대비·대응 역량을 살피고 모의훈련 수행, 생물 테러 대비·대응 장비 보관 상태, 응급실 증후군감시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남원의료원은 2002년 3월 23일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초기감지를 위해 응급실 중심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후군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생물테러 대비·대응 분야별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을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로 선제적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역량 강화

임실군은 15일 보건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공무원 및 지역축협 직원으로 편성된 살처분 예비인력 6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주제를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 개인 보호구 착용, 탈의 실습 훈련, 살처분 현장 진입 시 주의사항 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 예비인력과 인체감염 대책반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정해진 기간에 항바이러스제를 철저히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보건의료원은 AI 인체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하고,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의 조치를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 손소독제, 개인보호구(Level D세트) 등을 비축하고 있으며 살처분 예비인력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AI 대응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사전대비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